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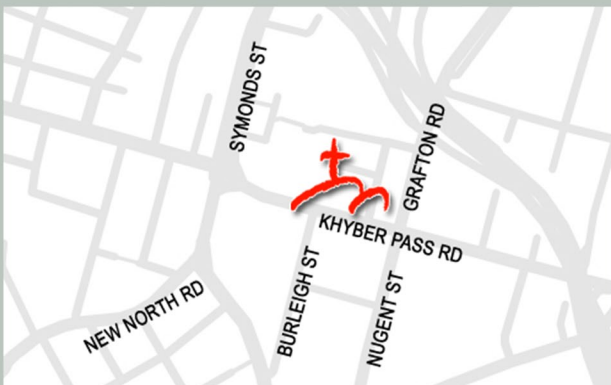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정독으로 말씀을 읽는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 범위는 출애굽기 14장-34장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시편 119:15)
- 8월 저녁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복음 15:7)
- 오늘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안건 토의)
- 공동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도자와 공동체장들은 구성원들의 형편을 잘 배려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8월 첫 주일입니다. 한 달 생활 계획을 신앙 중심으로 세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 거리 찬양 전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2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2 Mart에 중고 물건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8월 교회 사역 일정]

- 9일 (금) 금요일저녁기도회
- 25일 (주일) 권사 기도회
- 28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4남녀)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8/04
21권 31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18:24-25	-----	인도자
■ 찬송	10장	-----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268장	-----	다같이
대표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3:1-10	-----	인도자
찬양대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예수,그이름의능력	-----	이태한 목사
찬송	80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현석호 장로	금주기도	김다슬 자매
성경봉독	마태복음 5:17-20	다음주일	김수희 자매
설교	[복음과 율법] 이성훈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	323장		
주기도	다같이		

[8월 기도 순서]

- 8월 11일 (주일) / 정관영 장로
- 8월 14일 (수) / 문일숙 집사
- 8월 18일 (주일) / 이광희A 장로
- 8월 21일 (수) / 박후임 권사

[8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이병대, 이진아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박영선 A

MISSION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혹은 겨울)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곳은 많이 덥고 평소와 다르게 비도 좀 오고 했습니다. 여름에 비를 본 게 여기 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학원 - 지난주부터 학원은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없는 지금부터 학기 시작인 9월 1일 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수업 때문에 모든 교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한 교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도 이번 기회에 모두 교체하는데 학원이 더 깔끔하고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회 - 교회는 N 목사님과 A 선교사님이 각각 출장과 컨퍼런스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서 성도들끼리 모였습니다. 주로 G&E 부부 집, I&A 부부 집, E 할머니 집에서 모였고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는 성도들이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 - 저는 9월부터 일 년간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곳에 온 지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면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는데 몇 달 하고 연말에 그만두기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어중간해지기 때문에 9월부터 안식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고, 다른 곳에 안전하게 일 년간 보관하는 일이 큰일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23:1) 다윗의 삶 대부분이 늘 평화롭고 시냇가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는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여러 감정들이 생깁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곳 생활과 또 다른 곳에서의 일 년간 생활에 대해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좀 큰 13kg 정도의 수박을 샀는데(작은 수박이 거의 없습니다) 4천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이 계절을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나하르 드림

기도 제목

1. N 목사님이 영적으로 새롭고 충전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2. 저를 대신할 선생님과 새로운 현지인 선생님이 채워지도록.

PRAYER

1.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2.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날마다 더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비자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결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SHARING

정독으로 성경을 읽으며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과정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온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 가서 택하여 오라는 사명을 준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임하는 종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또 며느리 선택하는 것도 맡기었을까? 그 종은 명령을 받고 나홀로 이르러서는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12절) 리브가가 아브라함 형제의 후손임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했고(24-26절) 라반과 브두엘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와 명령대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도 기도했다(52절).

24장의 늙은 종을 그려보면 아브라함 옆에서 평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주인을 보며 그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묵묵히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며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살았을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주인을 따르며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맡겨진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지? 라고 질문해 본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감히 내 생각을 앞세웠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행한 그 노종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며 충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길 소망한다.

정혜숙 권사

창세기 43-45 / 요셉은 꿈꾸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만 알았는데 요셉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형제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감정과 느낌에 기반한 사랑이기에 쉽게 사그라지고 쉽게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사랑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43:23-45:13). 자기를 죽이려 한 형들, 자기를 종살이 감옥살이 시킨 원인 제공자 형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에 조건 없이 원망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할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에 하는 사랑은 비록 속는 것을 알 때도 상대방의 동기를 선하게 해석합니다.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대신 끝내 상대방을 변화시켜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찼던 형제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나도 요셉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도 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김자경 권사

금주의 암송말씀

사도행전 3:6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